

# “늘 꿈이었던 영화 연출...20년만에 이뤄졌어요”



### 연기 인생 접고 감독으로 복귀 추상미 다큐 '폴란드로 간 아이들' 31일 개봉 “개인·역사 상처 선하게 그리고 싶어”

배우 추상미(45)가 감독으로 복귀했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했다.

추상미는 15일 시사회 이후 간담회에서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하다 이제 첫 작품을 낸 새내기 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낸 1500여명의 전쟁고아와 이들을 8년간 부모처럼 돌본 폴란드 교사들의 실화를 쫓는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추상미는 “우연히 한 지인 출판사에 갔다가 이야기를 듣고 극영화로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상미는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극영화 ‘그루터기’를 준비 중이다. 극영화에 앞서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추상미가 폴란드 현지로 가서 만난 폴란드 교사 등의 증언 등을 담았다.

추상미는 “극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던 차에 폴란드와 접촉해보니, 아이들을 돌본 분들의 나이가 현재 80대 후반 또는 90대였다”면서 “이분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폴란드행에는 ‘그루터기’ 주연으로 뽑힌 탈북 소녀 이송도 함께 했다.

전쟁고아들은 폴란드 서부 도시 브로츠와프 근교 작은 마을인 프와코비체에 마련된 양육원에서 생활했다. 추상미가 만난 당시 양육원 원장을 비롯해 생존 교사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다.

처음 아이들이 기차역에 내렸을 때 얼굴조차 구분 못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했다. 아이들은 낯선 이들의 환대에 차츰 마음을 열며 낯선 땅에서 생활에 적응해갔다. 전쟁 상처를 딛고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던 이들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시작되면서 8년 뒤인 1959년 전원 북한으로 송환됐다.

폴란드 교사들은 왜 떠나던 타국에서 온 아이들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워하는 것일까. 폴란드 여정을 마친 추상미는 “상처의 연대”라는 말로 해석한다. 폴란드인들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군에 많은 압박을 당한 역사가 있다. 실제로 고아들을 돌본 양육교사 상당수도 전쟁고아 출신이었다.

“이 영화에는 많은 상처가 나옵니다. 저는 상처를 새롭게 조명하는 관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선생님들이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를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 데 선하게 사용한 것처럼,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상처도 증오와 어떤 프레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게 아니라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역사 뒤편에 숨은 아이들 이야기는 폴란드 언론인 율란타 크리소바타가 폴란드 한 공동묘지에서 ‘김귀덕’이라는 묘비명을 발견하고 그의 삶을 추적해 방송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폴란드에 온 전쟁고아였던 김귀덕은 백혈병에 걸려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이후 2006년 폴란드 공영방송 TVP가 다큐멘터리 ‘김귀덕’을 방영했다. 추상미는 현지에서 율란타 크리소바타를 만나 1천 500여명의 아이 중 절반은 남한에서 온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듣게 된다.

그렇다면 폴란드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추상미는 “제가 아는 것은 북한으로 간 아이들은 폴란드 어와 러시아어가 능통해 대부분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다”면서 “어른이 된 뒤 영사나 교수가 돼 폴란드로 다시 가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 온 탈북민 가운데도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연극배우 구 추송웅 딸인 추상미는 영화 ‘생물의 발견’(2002), ‘누구나 비밀은 있다’(2004)와 드라마 ‘사랑과 야망’(2006)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렸다.

그러다 2007년 뮤지컬 배우 이석준과 결혼했고, 4년만인 2011년 아들을 얻었다. 2009년 드라마 ‘시티홀’을 끝으로 연기 생활을 접고 대학에서 연출을 공부한 그는 2편의 단편을 선보이기도 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늘 영화 연출을 꿈꿨어요. 배우였을 때는 그 역할이 되기 위해 외부와 단절하고 혼자 짐을 짊어졌던 시간이 많았어요. 세상과 많이 분리된 느낌이었죠. 감독이 돼보니 세상을 보는 시선도 자유롭게 열리고, 사회적 이슈에도 민감해졌죠. 타인과 제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추상미는 이 작품 연출을 통해 우울증도 극복했다. “늦은 나이에 새 생명을 얻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왔죠. 그러나 시선이 고아들 쪽으로 바뀌면서 건강하게 극복이 됐습니다. 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발휘될 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연합뉴스



### “남편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 무서워”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CBS라디오서 주장

시각예술가이자 방송인인 낸시랭이 이혼 절차 중인 남편 왕진진(본명 전주)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까지 받고 있다. 여성으로서,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으로서 무섭고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씨가 이를 전 새벽 “(동영상) 공개되면” 이제 팝아티스트로서 10년, 20년, 40년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CBS가 낸시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낸시랭과 왕씨간 카카오톡 대화에도 이러한 정황이 나와 있다. 왕씨로 추정되는 ‘전준주 K’라는 이름의 ID가 mp4 형식의 영상파일 3건을 연달아 보낸 뒤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가했다 사람과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낸시랭은 “(동영상) 분명히 같이 지냈는데 이걸 따로 빼돌렸는지, 아니면 복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낸시랭은 작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또한 전했다.

그는 “남편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얼굴을 때린 것이 폭력 시작이었다”라면서 “이후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집안 감금과 폭행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씨가 지난달 20일 부부싸움 도중 물건을 부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4일 전해지면서 불화설에 휩싸였고, 여드레 뒤 SNS 글을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인터뷰 내내 울먹인 낸시랭은 현재 추가적인 폭력이 두려워 선배 작업실과 지인 자택에 머무르는 중이라고 했다.

왕씨는 이후 이데일리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낸시랭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낸시랭이 자신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해 (영상 속) 두 사람의 관계로 미뤄보아 ‘협박이나 폭행, 감금하는 사이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테마기행 길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천년의 전라도 2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0 UHD 숨터(재)	00 오늘의 탐정(재)	00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지 동물교실 50 UHD 맨도롱 또똔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수영, 농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판다랑 55 송파폭죽(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워킹벵뱅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15 호남4시MBC 공동기획 특별생방송 지나온 천년, 미래로 천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무학행(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든TV 인사이드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외과 :심장을 옮긴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무학행 1~2부
[12]	00 2018 춘천 가족음악축제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잇동네 영재 이야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생애 한 번쯤은 인도 4부 우리가 바라나시에서 만난다면>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가 풀리	21:30 한국기행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가을이라 좋아 4부 대추나무에 가을 열리면>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연어 스테이크>	16:30 칼랄라 뿌우(재)	25:10 과학 다큐 - 비온드(Beyond)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8일(음 9월 10일 癸未)

36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라. 48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60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72년생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안전하다. 84년생 노파심은 버리고 험하게 추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9, 78	42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과신은 소모적인 행국을 조성할 뿐이다. 66년생 돌발적인 변수의 상황까지 예견해야 하느니라. 78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90년생 서막에 이르자마자 즉시 가닥이 잡히리라. 행운의 숫자 : 55, 70
37년생 장고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49년생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61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 된다 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처음에는 상심할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용기백배 하리라. 85년생 막연하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68, 44	43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없느니라. 55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67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진분을 가감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91년생 실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4, 64
38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다. 50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62년생 안벽을 꺾으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행편이 될 수 있다. 74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86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2, 72	44년생 예기치 않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6년생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68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80년생 속출하여 당황할 수 있다. 92년생 참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데 용이한 길목을 터준다. 행운의 숫자 : 35, 21
39년생 날카롭게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야기한다. 51년생 폭풍전야와도 같다. 63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75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해진다. 87년생 가로 막는 장애물이 보이거든 우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43, 37	45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니라. 57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81년생 소비적이라면 반드시 고려해 봐야만 한다. 93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어를 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7, 19
40년생 조상의 음덕을 입고 있으니 정성을 다한다면 행운이 따르리라. 52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64년생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76년생 실제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맞다. 88년생 먼 미래를 보며 대응 하자. 행운의 숫자 : 56, 47	34년생 생소한 것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느니라. 46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58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해야 승산이 있다. 70년생 바라만 보아도 황홀할 것이다. 82년생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04, 68
41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53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65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77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89년생 처음에는 조금씩이겠지만 점차 확대 일로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2, 82	35년생 명분만으로는 공허하므로 실속도 찾아라. 47년생 대응소이다. 59년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71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니라. 83년생 다수자가 심각하게 의논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38